

서운영의 집과 사람



‘시스템 키친’의 시작

더디 오든 빨리 오든 봄은 오는데 봄은 또 한 이사의 계절이기도 하다. 집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국의 아파트들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음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현관을 열자마자 바로 거실이 있고 이 거실이 식당과 주방으로 연결된다 점에서 동일하다. 침실은 귀퉁이에 있고 중앙에 거실-식당-주방이 한데 어진다. 이른바 LDK(living room + dining room + kitchen) 구조다.

기능적으로도 거실과 주방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안방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부엌은 되도록 숨겨진 공간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모습이다. 또한 식당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하기도 하다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는 통로 부분에 식탁을 놓는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구성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가능적이고 위생적인 부엌은 1920년대 독일에서 탄생했다. 당시 유럽은 1차대전이 끝나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다. 건축학교에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되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곳이 주방이었다.

19세기의 부엌은 지금의 주방과는 개념이 다르다. 석탄으로 불을 때고 생선과 닭을 직접 손질하고, 그러니 헛간이나 마구간과 비슷한 작업공간이었다. 그런데 비우하우스(독일의 예술건축학교) 출신의 여성건축가 마가레테 슈테 리호츠키(Margarete Schutte-Lihozky, 1897~2000년)가 조리작업을 분석해 동선과 가사노동 효율을 높인 새로운 주방을 선보였다.

이는 능률적 작업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해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포드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주방의 조리 작업을 재료 준비-씻기-자르고 양념하기-굽고 끓이기-식탁 차리기 등으로 세분하여 주방을 구성한 것이다. 무조건 크고 넓은 것보다 오히려 주방이 작아야 동선이 짧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주방의 전면 폭을 2.8m로 정했다.

당시 유럽은 1차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주택 수요가 급증할 때였다. 1926년 이렇게 탄생한 부엌은 ‘프랑크프루트 주방’이라 불리면서 4년 동안 1만 호의 주택에 채택되었다. 이후 ‘시스템 키친’으로 불리면서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여기에 식당과 거실이 한데 맞붙은 LDK는 1930년대 일본에서 탄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을 앞두고 사회 전반이 전시체제로 돌입하고 있었다. 남자는 징병이 되고 여자는 생산시설과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절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국제주의 건축에 크게 영향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 니시야마 우조(1911~1994년)는 주방과 거실을 한데 붙여 동선을 줄인 LDK를 만든다. 이후 일본이 패전하고 1950년대 재건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LDK는 더욱 확산된다. 협소한 주택에서 시간과 공간 및 동선을 모두 줄여 주는 주방은 1960~70년대 빠르게 산업화의 길로 달리던 일본사회에 꼭 맞는 모델이었다.

이렇듯 아시아와 유럽이 직접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태평양 너머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미국은 2차 대전 후의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독일은 전쟁 중 각종 군수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 모두 가전제품으로 바뀌어 주방에 자리잡았다.

냉장고, 전기주전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리잡은 가전제품은 본디 독일이 전쟁 중

에 개발한 군수품들이다. 이것이 전쟁을 겪지 않은 미국의 1950~60년대 풍요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가사노동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전제품들이 불타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1970~80년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졌고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다. 가사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전제품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이 가전제품을 비치하는 장소로서의 주방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는 곳이 바로 각종 가전제품이 놓이는 주방이 된 것이다. 이제 주방은 맘스 데스크(mom's desk, 가계부를 정리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엄마 책상)까지 두는 등 주방을 위한 제2의 거실이 되어가고 있다.

포드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유래한 시스템 키친,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만든 LDK. 본래는 군수품이었던 가전제품의 배치 등 현대의 시스템 키친에는 1920~30년대 전쟁을 준비했던 독일과 일본의 그림자가 배어 있다. <건축 칼럼니스트>

공천 ‘회군’ 재정치연합 이제 민심 새겨라

재정치민주연합이 10일 오는 6·4지선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한 애초 당론을 뒤집고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성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여당 공천과 야당 무공천의 '2개 톨 선거'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정치연합 후보가 기초 2번으로 출마하게 됨에 따라 새누리당과 1대1 구도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치연합이 선거 목전에서 당론을 180도 바꿔 전격 ‘회군’함으로써 당론의 승부수를 띄웠던 안철수 공동대표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안 대표가 재정치연합 창당 명분을 ‘기초선거운동’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실망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社說

공천 ‘회군’ 재정치연합 이제 민심 새겨라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오늘은 새 정치는 완전히 땅에 묻혔다”며 “더는 새 정치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무공천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서도 말을 바꾸고 약속을 뒤집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공약을 과거 상황과 달리 안 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을 통해 결과를 수용한 만큼 그렇게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또 대선 당시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당이 폐지를 안 할 경우까지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의 여지는 있다.

이제 재정치연합은 공천 여부로 촉박된 당내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신당 통합에 따른 후보 지분 논란 등을 불식시켜야 하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경선 방식도 서둘러 결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핏줄 못쳐 국민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완도해조류박물관 성공 개최 힘 모아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조류를 소재로 한 '2014 국제해조류박물관'이 11일 완도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주제는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 박물관은 한 달 동안 완도항 일대에서 개최된다.

완도는 김·미역·다시마·뽕·매생이·완도고·과래 등 해조류 국내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해조류 보물창고라 할 만하다. 9000여 어가가 연간 37만여톤을 생산하는데 소득 창출액은 1500억 원에 이른다.

행사 기간 동안 완도군은 해조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 발전 가능성을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히 보여줄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완도항 물양장에 주제관과 4개 전시관, 해양문화촌, 체험장을 설치하고 3곳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박물관은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2년 가까이 준비해 온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목표 관객객은 70만 명인데 이미 54만 장 이상의 입장권이 사전 예매돼 성공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주민들도 의지의 친척이나 지인에게 2만 부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가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프라이 부족에 따른 교통과 숙박 문제다. 완도는 특히 박물관 시설이 시내에 배치된 데다 진입로가 외곽이어서 교통대란의 우려도 적지않다. 이에 대비해 시내 차량 전면통제, 주민 자가용 안 타기 등 대책을 마련도 하지만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숙박업소나 음식점들도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로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 '일강의 섬' 완도를 물론 국내 최대의 '수산도(道)'인 전남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해조류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 힘을 모아줘야겠다.

종교칼럼



김현철 장흥 보림사 주지

화쟁의 길

을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깨닫고 보니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동서남북이 없으며 피부의 색깔도 없는 일이 평등한 하나의 상품으로 일체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마다 차별 없이 가지고 있는 한마음이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익힌 ‘탐진치 삼독’(貪瞋癡 三毒)으로 찌든 습관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체 차별의 세계를 일미 평등으로 돌이켜 응섭하는 원효의 화쟁(和靜) 사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끝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절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임으로써 아상(我相)을 꺾어버리고 탁한 물을 쏟듯이 잘못된 견해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끝없이 열 불꽃을 진언을 외우는 것은 입으로 지은 바의 죄업을 참회하고 상대를 공경하고 찬탄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부자를 들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은 끝없이 일어나

고 사라지는 생각을 바로 알아차려 본래 일어난 자리를 회광반조(回光返照)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더없이 평온하고 안락하여 허공처럼 티없는 일심으로 돌아가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끝없이 걷는 수행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살피는 것은 모든 생명이 나와 돌아간다는 체험으로 일체 욕망을 조절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공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와 식량·물 부족 현상으로 머지않아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흘러가는 물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였으며 바 투쟁을 실천하여 한 톨의 쌀에서 천지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디다.

어느 시인은 사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월은 낡고 병든 습관이라는 살점을 도려내는 사월의 아픔이 없으면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기부정의 혁명을 통해 일체 중생의 고통과 화쟁하는 거룩한 이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자나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자와 가난한자와 억울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수행하기가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결코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나면 화쟁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도법스님 일행이 보림사에서 하루밤을 쉬어간다고 오십니다.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걸갈한 반찬과 맑은 차를 준비하여 먼길의 피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스님의 원력을 모두가 화쟁의 바다에서 차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 대지를 흔들었던 바람은 처처에 꽃이 피고 불이 흐르게 합니다.

기고



김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광주상담실에 거는 기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이 13건,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26건 등 모두 39건이 접수되었고, 지난해에는 위헌법률심판 28건, 정당해산심판 1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심판 1440건 등 총 147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접수 누계를 보면 위헌법률심판 822건, 탄핵심판 1건, 정당해산심판 1건, 권한쟁의심판 82건, 헌법소원심판 23,898건 등 총 2만4804건이 접수되었다.

통계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헌법소원이다. 그동안 누계 접수 2만4804건 중 헌법소원이 2만3898건으로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의 역할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관한 상담이 중심이다. 헌법소원은 소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다가 각각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령 등 공권력

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비롯하여 청구기간, 재판의 전제성, 법적 관련성 등 까다로운 소송요건(헌법재판에서는 이것을 ‘적법요건’이라고 부른다)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0여년간 근무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수요 내지는 요구가 많은데 비하여 이 제도에 대한 이해 내지는 홍보가 부족하여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지정 재판부에서 각하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더군다나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서울 한 곳밖에 없어서 특히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헌법소원, 나아가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소원심판에 따르는 까다로운 절차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상조치(代價措置)인 국선

대리인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앞으로도 매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광주지청 민원실에서 지역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니, 우리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학생들도 상담에 참여하거나 참관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에는 각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상설’ 지역상담실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무쪼록 이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광주지역 상담실이 헌법재판소의 광주지청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효용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등기임원 평균 연봉 15억,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최근 연봉을 공개한 361개사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15억 4500만원이다. 특히 10대 그룹들의 등기임원 연봉은 무려 66억여원이어서 더욱 놀랍다. 반면 밑에서 시간의 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연봉은 7500만원으로 1/14에 불과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임원과 직원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된다.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

고 돈은 왕새방이 가져가는 격’이 아닌가. 물론 일부 임원들은 오랜 근무로 기업에 공로가 있고 실적을 올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저 지나나 자지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매달 5억5000만원씩 받는다면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닌가. 더구나 성과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과연 임원들이 그만큼 눈에 딸만한 성과가 있어 천문학적인 숫자만

큼 지급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성과를 낸 임원들에게 보상해줌으로써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인재를 독려하고 미래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과연 그들이 낸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데 있다.

오너회장들이 황령이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씩 챙겨 가거나 과도할 정도로 기업의 이윤을 임원들만 독식하며 배당도 주주들에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임원들만 쥔

겨 준다면 누가 선택 납득할수 있겠는가. 미국의 어느 CEO는 적자경영시 연봉 1달 러만 받았다는 것을 새겨 들길 바란다. 반면 우리의 기업 임원들은 경영실적을 떠나 단지 임원이란 이유만으로 수십억원씩 가져간다면 큰 욕망도 썩다. 진정한 임원들에게 많이 주려면 임원 보수의 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경영 성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서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에 대한 반감이나 반기응답 정서가 사라질 것이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승정 1동

無 等 鼓

일본 도쿄를 여행하는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할 성지가 있다. 바로 ‘지브리 스튜디오’다.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비람 위의 포뇨(ポニョ)’ ‘하물의 움직이는 성’ 등을 만든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면 입구 매표소에 앉아 있는 토토로를 비롯해 ‘천공의 성 리큐타’에 등장하는 거대 로보 등 영화 속 캐릭터들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타요 버스

있다. 역사에서는 타마사랑과 쿠기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요즘 국내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람의 숲’을 따라 주변 풍경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게 첫 번째다.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코(고양이) 버스’라 불리는 전용 버스(왕복 300원)를 타고 가는 거다.

정류장에서 만나는 버스는 사랑스럽다. 노란색 유치원 통학버스처럼 생긴 버스 외관은 고양이·유럽·박쥐 등 앙증맞은 캐릭터로 장식돼 있다. 버스를 타면 나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일본의 와카야마 현 기시역에서는 ‘고양이 역장’이 있다. 길고양이였던 타마역장이 주인공이다. 환경미화원에게 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b>062-227-9600</b>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문예체육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시 설 국 2200-54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 F A X 227-9500 > 디 자 인 실 2200-536 프 로 제 크 트 팀 2200-555 ※구독료 일정 10,000원 1부 500원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 F A X 227-9500 > < F A X 02-773-9331 > < F A X 02-773-9335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